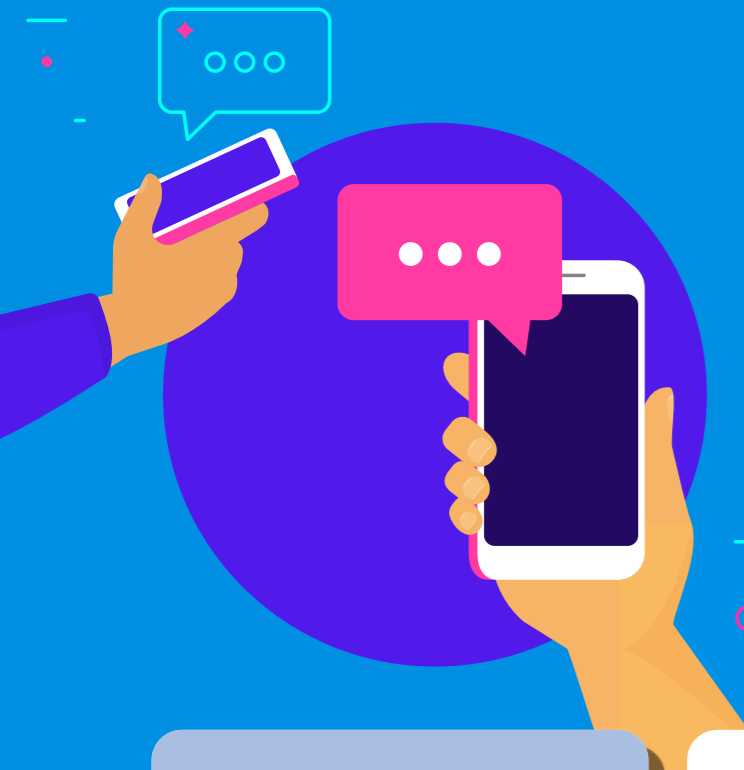


분류하고 관리하는 인덱스 관계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은 일상 속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모습은 이제 찾기 어렵다. 대신 SNS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와 손쉽게 관계 맺고 소통하는 온라인 만남이 더 활발하다. 이를 '인덱스(Index) 관계'라고 한다. 인덱스란 '색인 또는 목록'이라는 뜻으로, 이름과 크기, 속성 등을 표시해 데이터를 기록함을 지칭한다. 즉 인덱스 관계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인간관계를 맺고 인덱스를 붙이듯 분류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과거 소수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는 '관계 맺기'가 요즘은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를 필요에 따라 '관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 셈이다.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진 요즘, 인덱스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인덱스 관계 (Index Relationship)란?

인덱스 붙이듯 목적 또는 중요도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고 분류하는 일



인덱스 관계의 예

선망하는 '인친'
인스타그램 친구

함께 덕질 하는 '트친'
트위터 친구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페친'
페이스북 친구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
실제 친구

기존과 차이점

관계 맺기

소수의 친구와
진한 우정을 쌓는 것



관계 관리

목적에 기반하여 형성된 인간관계를
구분·관리하는 것



인덱스 관계의 3단계

만들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
혹은 랜덤 방식으로 관계
만들기

분류하기

본인 기준에 맞춰 '친함'의
정도에 따라 관계 분류하기



관리하기

불필요한 관계는 끊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하기

장단점

장점

일상 대부분을 공유하며 동기 부여를
받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



단점

자기중심적이고 효율성에만 무게를
뒀 관계에 회의를 느낄 수 있음

사례

에어드롭 놀이

애플 유저 간 사진이나 영상 등 전송을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보내는 기능
→ 반경 9m 안 사람과 콘텐츠를 주고받으며 라인과 관계 확장



SNS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기능, 트위터의 '서클'
→ 공유할 대상을 직접 선택해 리스트를 만들